

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

# VIP 리포트

■ 한중 수교 24주년 의미와 과제  
- 중국 서비스 시장 공략이 필요하다!

# 목 차

---

## ■ 한중 수교 24주년 의미와 과제 - 중국 서비스 시장 공략이 필요하다!

Executive Summary .....	i
1. 개요 .....	1
2. 한중 경제 협력 현황 .....	2
3. 시사점 .....	11

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총            괄            : 이 부 형 이 사 대 우 (2072-6306, Leebuh@hri.co.kr)

중 국 경 제 팀        : 한 재 진 연 구 위 원 (2072-6225, hzz72@hri.co.kr)

## Executive Summary

### < 요 약 >

#### ■ 개요

올해 수교 24주년을 맞는 한·중 양국은 최근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한편 마찰도 빈번해지면서 상호간 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. 특히, 2000년 이후부터 마늘과동(2000년), 동북공정(2004년) 등 양국 간 마찰 양상뿐 아니라, 통화스와프 체결(2008년), 한·중 FTA 발효(2015년)와 같은 경제 협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. 이러한 과정에서 한·중 양국은 교역, 투자, 인적교류 등 경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질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을 지나고 있다.

#### ■ 한·중 경제 협력 현황

한·중 경제 협력 변화를 교역, 분업구조, 통상관계, 투자, 금융, 인적교류, 온라인 상거래 등 7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① **상호간 교역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.** 한·중 양국은 1992년 수교이후 무역의존도가 서로 상승하면서 2015년 기준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의존도는 26%에 달하며 중국의 對 한국 수출의존도도 소폭 상승한 7.1%를 기록하였다. 또한, 양국 간 상품수출입 구조도 상호간 긴밀한 보완작용을 하고 있는데, 한국의 對 중국 무역보완도 지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줄곧 0.9 이상을 보이는 등 對 중국 무역의존도가 큰 상황이다. ② **양국 간 분업구조도 심화되고 있다.** 우리나라의 전체 중간재 총수출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수교이후 약 20%p 증가했다. 또한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,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의 對 중국 부가가치 수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. 이는, 한·중 간 중간재를 중심으로 생산과 가공·조립의 분업체계가 여전히 공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 ③ **통상관계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.** 한·중 양국은 FTA, RCEP 등 지역경제통합의 확산과 더불어 교역관계가 심화되고는 있으나, 한편으로는 중국의 對 한국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실행건수가 1992~1999년 사이 343건에서 2000~2008년 814건, 2009~2015년 1,597건으로 급증하는 등 보호무역이 확산되면서 통상관계는 복잡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. ④ **양국 간 직접투자는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.** 중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규모면에서 여전히 작지만, 대상 업종은 기계·장비, 전기·전자, 사업서비스, 부동산, 금융 등 분야로 고도화되고 있다.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도 1992~2015년 사이 제조업 부문 의류, 섬유 업종에서 전자, 자동차 분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, 전문·과학기술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. ⑤ **한·중 간 금융 인프라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.** 올해 상해 원-위안 직거래 시장개

설 등 한·중 금융협력 진전을 통해 양국 간 금융 인프라가 점차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. 한중 간에는 2008년 통화스와프 체결, 2014년~2016년 한중 간 원-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양국간 금융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.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 외환 예금 중 위안화 비중이 2016년 7월 현재 약 3%로 미약하지만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. 더욱이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중국 자금도 지속 유입되고 있다. 2015년 현재,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국의 순매수는 -0.1조원으로 감소했으나, 채권 시장에서 채권 순투자는 동시점 약 2조 7천억 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. ⑥ **한국으로의 중국인 유입 증가로 對 중국 여행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.** 한·중 간 인적교류는 1995년 약 59만 명에서 2015년 약 1,035만 명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. 한국 내 중국 입국자 수는 1992년 1.4만 명에서 2015년 590.3만 명으로 연평균 약 30% 급증하였으며, 訪韓 중국인 비중도 동기간 0.6%에서 42.1%로 급상승하였다. 특히 한국 내 중국 유학생 수도 크게 늘어났다. 한국 내 중국 유학생 수는 1992년 3명에 불과했으나, 2015년 현재 약 9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,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약 67%를 차지하고 있다. 이러한 국내로의 중국인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對 중국 여행수지 흑자폭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. 한국의 對 중국 여행수지는 1998년 -2.1억 달러에서 2010년 -4.1억 달러로 적자 양상이 지속되어 왔으나, 2011년 1억 달러에서 2015년 약 70억 달러로 5년 연속 흑자가 지속되는 등 국내 여행수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. ⑦ **양국 간 온라인 교역 시대가 열리고 있다.** 최근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'해외직구'나 '역직구' 유형의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. 한중간 거래는 한국에서 중국으로부터 구입하는 해외직구는 전체의 약 9%에 불과하지만,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구입하는 역직구 형태가 2016년 1/4분기 현재, 전체 대상 국가의 약 76%에 이르는 등 중국의 국내 상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.

### ■ 시사점

한·중 경제 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, 서비스 등 양국 간 산업 전반에 걸친 질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. **첫째**, 상품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양국 간 경제협력 구조를 제조업 및 서비스에 대해 균형적으로 교역 구조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. **둘째**, 한·중 양국 간 분업구조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해 단순 조립·가공 단계에서의 협력 관계를 넘어서 기획, R&D,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확대 발전이 필요하다. **셋째**, 아시아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초하여 양국은 국가 핵심 정책 차원에서의 협력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. **넷째**, 교육프로그램 개선, 관광 서비스 상품 개발 등 양국 간 인적교류 및 콘텐츠의 질적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. **다섯째**, 한·중 간 온라인 상품 거래가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비한 국내 온라인 유통 서비스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.

## 1. 개요

- 올해로 24주년을 맞는 한·중 양국은 최근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한편 마찰 양상도 나타나는 가운데, 상호간 질적인 경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
  - 1992년 수교 이후 한·중 간 경제 협력이 지속 강화
    - 한·중 간 경제 협력은 1992년 8월 한·중 수교 이후 2016년 8월까지 지난 24년간 경제 교류가 지속 확대
    - 양국 간 관계는 1998년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서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으며,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지속 심화 되는 있음
  - 특히, 2000년 이후에는 양국 간 협력 및 마찰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남
    - 2000년 마늘과동, 2004년 동북공정 등 양국 간 마찰뿐 아니라, 2008년부터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원-위안 간 통화스와프 체결, 2015년 한·중 FTA 발효 등 양국 간 경제 협력도 강화
    - 이 과정에서 교역, 투자,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경제 교류 측면에서도 질적으로 지속적인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
- 이에 최근 한·중 양국 간 경제 협력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< 1992년 한·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 >

시 기	양국 관계	협력	마찰
1992~1997	• 선린우호 관계	• 통화 스와프 체결 ('08) • 원-위안 직거래시장 개설('14,'16) • 한·중 FTA 발효('15) • AIIB 회원국 가입('15)	• 마늘과동('00)
1998~2002	• 협력적 동반자 관계		• 동북공정('04)
2003~2007	•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		• 김치분쟁('05)
2008~2012	•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		• 사드배치('16)
2013~2016	•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지속		

자료 : 내외신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.

## 2. 한·중 경제 협력 현황

### ① 상호 교역의존도 상승

○ 한·중 양국 간 무역 상호 의존성과 보완성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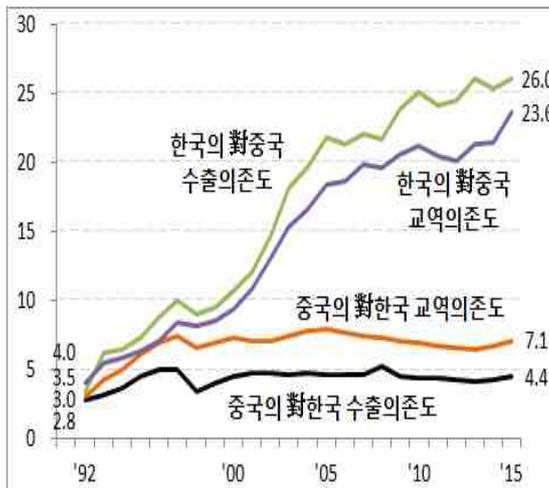
- 한·중 양국은 1992년 수교이후 양국 간 무역의존도가 상승

- 2015년 기준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의존도는 26%에 달하며 중국의 對한국 수출의존도도 소폭 상승한 7.1%를 기록
- 2015년 한국의 교역에서 중국의 순위는 수출, 수입기준 모두 1위로 부상하였으며, 중국의 교역에서 한국의 순위도 수출기준 4위, 수입기준 1위로 상승

- 또한, 양국 간 상품수출입 구조도 상호간 긴밀한 보완작용을 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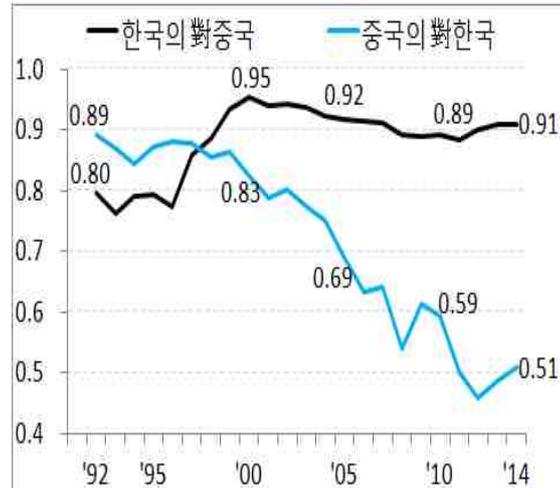
- 무역보완도<sup>1)</sup> 지수는 한 국가의 상품 수출구조와 교역 대상국의 수입구조가 비슷할수록 1에 가까움
- 한국의 對 중국 무역보완도 지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줄곧 0.9 이상을 보이는 등 對 중국 무역의존도가 큼
- 중국의 對 한국 무역보완도 지수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연속 상승세

< 한·중 양국간 무역의존도 >  
(비중,%)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, UN Comtrade 자료로 HRI 재구성.

< 한·중 무역보완도지수 (8대산업) >  
(p)



자료 : UN Comtrade 자료로 HRI 계산.  
주 : 8대 산업은 석유·석탄, 철강, 철강제품, 기계, IT, 자동차, 조선, 정밀기기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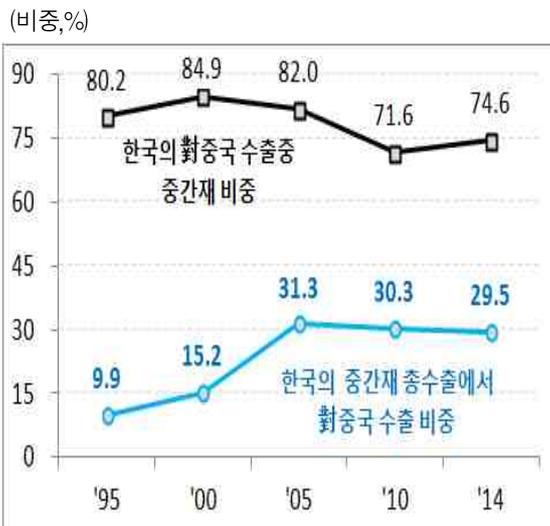
1) 무역보완도의 개념 및 산출 방식 등은 [부록] 참조.

② 양국 간 분업구조 심화

○ 한·중 양국은 중간재의 생산과 가공·조립과정을 분담하는 등 분업구조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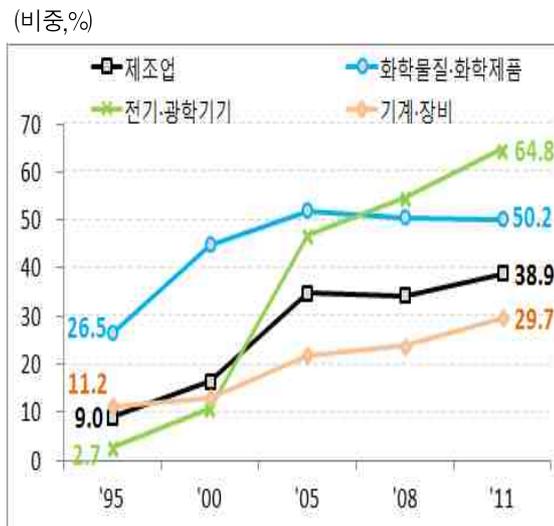
-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중국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음
  - 우리나라의 전체 중간재 총수출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1995년 9.9%에서 2014년에는 29.5%로 증가하면서 수교이후 약 20%p 증가
  - 우리나라의 對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도 동기간 80.2%에서 74.6%로 소폭 줄어들기는 했으나, 여전히 높게 나타남
  - 이는, 한·중 간 중간재를 중심으로 생산과 가공·조립의 분업체계가 여전히 공고하다는 것을 의미함
- 양국 간 분업체계의 심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의 對 중국 부가가치 수출도 상당히 높은 수준
  - 2011년 기준, 우리나라 전기 및 광학기기 분야 중간재 부가가치의 해외수출 가운데 중국으로 창출되는 비중은 1995년보다 53.6%p 높은 64.8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< 한국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비중 (수출액 기준) >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, UN Comtrade 자료로 HRI 재구성.

< 한국의 주요산업 對중국 중간재 수출비중 (부가가치 기준) >



자료 : OECD-Tiva(2015) 자료로 HRI 재구성.

③ 통상관계 복잡화

○ FTA, RCEP 등 지역경제통합의 확산과 더불어 양국의 교역이 심화되고는 있으나,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등 통상관계가 복잡한 추세로 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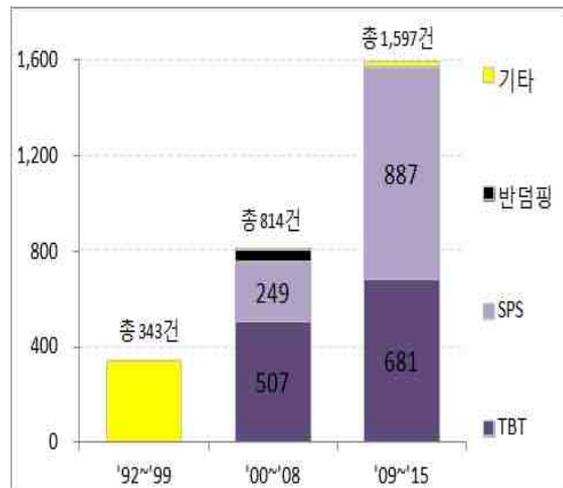
-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FTA는 물론, 한·중·일 FTA, RCEP 등을 통해 지역 경제통합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
  -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·중 FTA를 통해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통합에 크게 기여
  - 또한, 한·중·일 FTA, RCEP 등도 첫 협상개시 이후 연간 2~3차씩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등 지역경제 통합에서 협력하고 있음
- 반면,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실행건수가 급증하는 등 보호무역도 확산 추세
  - 중국의 對 한국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실행건수는 1992~1999년 사이 343건에서 2000~2008년 814건, 2009~2015년 1,597건으로 급증
  - 그 중에서도 위생 및 검역(SPS)과 기술장벽(TBT) 건수는 1992~1999년 사이에는 한건도 없었지만, 2000~2008년 249건, 507건에서 2009~2015년에는 각각 887건, 681건으로 급증<sup>2)</sup>

< 한·중 주요 FTA 추진 현황 >

구분	주요 내용
한·중 FTA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04~2006년 민간공동연구</li> <li>• 2012년 1차협상 진행</li> <li>• 2014년 타결 (14차 협상종료)</li> <li>• 2015년 12월 발효</li> </ul>
한·중·일 FTA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03~2009년 민간공동연구</li> <li>• 2013년 1차협상 진행</li> <li>• 2016년 10차 협상 진행</li> </ul>
RCEP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11년 중국주도의 RCEP 구상 채택</li> <li>• 2013년 1차협상 진행</li> <li>• 2016년 14차 협상 진행</li> </ul>

자료 : 관련 FTA의 일지를 참고하여 HRI 작성.

< 중국의 對한국 관세/비관세 조치건수 >  
(누적 건수)



자료 : WTO I-TIP 자료로 HRI 재구성.

주 : 기타에는 상계관세, 수량제한, 세이프가드 등 조치가 포함.

2) TBT와 SPS 건수는 상대국으로부터 비관세조치를 받았다고 통보하는 국가가 해당품목의 HS코드를 기준으로 WTO에 보고한 통보문을 근거로 집계됨.

④ 상호 직접투자는 점차 고도화

- 중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규모면에서 여전히 작지만, 대상 업종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
- 중국의 對 한국 제조업 직접투자 분야는 전기·전자를 중심으로 기계·장비, 식품 등 분야로 발전
  - 2015년 기준 중국의 對 한국 제조업 직접투자 신고액 규모는 19.8억 달러로, 기계·장비, 전기·전자, 식품 분야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남
- 3차 산업 직접투자도 도·소매업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사업서비스, 부동산, 금융 등 분야로 고도화 되고 있음
  - 2015년 기준 중국의 對 한국 3차 산업 직접투자 규모는 17.4억 달러에 그쳤지만, 한·중 수교 이래 투자대상 분야는 금융, 부동산, 도소매 등으로 고도화

< 중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 상위 3대 업종 >

(단위 : 백만 달러)

구 분	제조업	서비스업·부동산업·건축업
1992년	1위 : 금속 (0.06)	1위 : 숙박·음식업 (0.55) 2위 : 도·소매업 (0.44)
1995년	1위 : 의약 (2.60) 2위 : 화학 (1.34) 3위 : 금속 (1.08)	1위 : 도·소매업 (2.97) 2위 : 물류 (0.65) 3위 : 음식·숙박 (0.43)
2000년	1위 : 전기·전자 (3.57) 2위 : 화학 (1.81) 3위 : 기타제조업 (0.87)	1위 : 도·소매업 (58.79) 2위 : 숙박·음식업 (5.86) 3위 : 문화·오락 (0.93)
2005년	1위 : 운송기기 (13.72) 2위 : 전기·전자 (7.47) 3위 : 화학 (2.80)	1위 : 도·소매업 (32.10) 2위 : 사업서비스 (2.46) 3위 : 숙박·음식업 (1.99)
2010년	1위 : 전기·전자 (261.94) 2위 : 금속 (21.58) 3위 : 식품 (19.18)	1위 : 도·소매업 (23.26) 2위 : 사업서비스 (9.79) 3위 : 숙박·음식업 (8.58)
2015년	1위 : 기계·장비 (115.88) 2위 : 전기·전자 (40.83) 3위 : 식품 (26.01)	1위 : 금융·보험업 (1,200.2) 2위 : 도·소매업 (178.9) 3위 : 부동산·임대업 (165.6)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HRI 재구성.

주 : 투자 신고금액 기준임.

-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는 수교이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모두 점차 고도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
  -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는 1992~2015년 사이 제조업 부문 의류, 섬유 업종에서 전자, 자동차 분야로 고도화 됨
    - 1992년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는 노동집약적인 의복, 섬유 등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가 점차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2015년에는 자동차, 전자, 전기 분야로 바뀜
  - 동기간 3차 산업 부문에서는 숙박·음식업, 도·소매업 중심에서 도·소매업, 금융, 전문·과학기술 분야로 고도화되었음
    - 한·중 수교 이래 도·소매업은 對 중국 서비스업 직접투자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, 점차 금융·보험, 전문·과학기술 서비스 분야로 고도화됨

<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 상위 3대 업종 >

(단위 : 백만 달러)

구 분	제조업	서비스업·부동산업·건축업
1992년	1위 : 의복·모피 제조업 (23.1) 2위 : 섬유제품 제조업 (20.1) 3위 : 기타제품 제조업 (18.6)	1위 : 숙박·음식업 (22.0) 2위 : 도·소매업 (0.2)
1995년	1위 : 전자부품·컴퓨터 (122.5) 2위 : 비금속광물 (93.0) 3위 : 섬유제품 제조업 (79.9)	1위 : 부동산업·임대업 (50.4) 2위 : 건설업 (25.9) 3위 : 도·소매업 (16.0)
2000년	1위 : 비금속광물 (174.3) 2위 : 전자부품·컴퓨터 (132.3) 3위 : 화학물질·제품 (39.4)	1위 : 도·소매업 (59.3) 2위 : 숙박·음식업 (57.8) 3위 : 운수업 (22.1)
2005년	1위 : 전자부품·컴퓨터 (497.7) 2위 : 자동차·트레일러 (359.1) 3위 : 1차금속 (273.4)	1위 : 도·소매업 (193.4) 2위 : 금융·보험업 (93.8) 3위 : 건설업 (67.7)
2010년	1위 : 전자부품·컴퓨터 (1,352.8) 2위 : 자동차·트레일러 (201.2) 3위 : 화학물질·제품 (176.7)	1위 : 금융·보험업 (350.3) 2위 : 도·소매업 (223.5) 3위 : 전문·과학기술 (127.7)
2015년	1위 : 자동차·트레일러 (665.9) 2위 : 전자부품·컴퓨터 (536.4) 3위 : 전기장비 (233.0)	1위 : 도·소매업 (246.8) 2위 : 금융·보험업 (168.4) 3위 : 전문·과학기술 (74.5)

자료 :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HRI 재구성.

주 : 실제 투자금액 기준임.

⑤ 한·중간 금융 인프라가 점차 확대

○ 올해 상해 원-위안 직거래 시장개설 등 한·중간 금융협력 진전을 통해 양 국가간 금융 인프라가 점차 확대 양상을 보임

- 양국간 통화스와프, 원-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등 한·중 간 금융 협력이 가속되면서 국내 위안화 수요도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여전히 미약한 상태
  - 한·중 간 통화스와프는 2008년 12월 1,800억 위안(32조원)으로 합의한 2014년 10월 3,600억 위안으로 후 2017년까지 3년 만기를 합의했으며, 2016년 이를 확인함
  - 또한, 2014년 서울 원-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상해 원-위안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며 한·중 간 자국 통화 수요 확대 인프라를 구축
  - 하지만, 국내 거주자 외화 예금 중 위안화는 2016년 7월까지 약 3%로 지난 2014년보다 크게 낮아지며 위안화의 국내 입지는 여전히 미약 수준

- 국내 금융 시장으로 유입되는 중국 자금 규모도 채권시장 중심으로 확대
  - 국내 주식 시장에서 중국의 순매수는 2009년 0.9조원에서 2013년 2조 2천억 원으로 급증했으나, 2015년 -0.1조원으로 하락
  - 다만, 채권 순투자는 2015년 현재 약 2조 7천억 원으로 3년 연속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냄

< 국내 위안화 예금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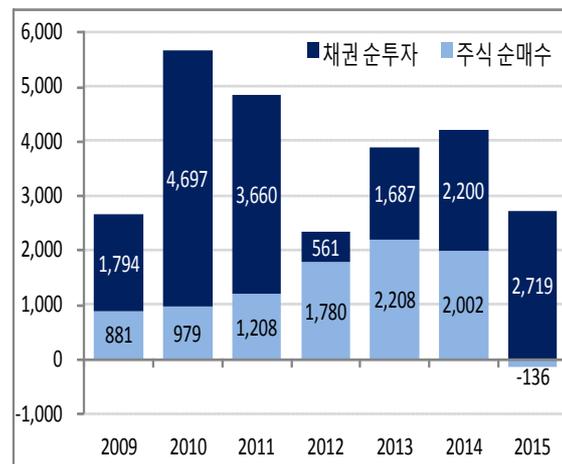
구분	국내 위안화 예금	
	액(십억 원)	비중(%)
2010	0.5	
2012	1.7	0.5
2014	193.7	31.7
2015	46.8	8.0
2016(~7월)	19.9	3.0

자료 : 한국은행.

주 : 거주자외화예금 기준.

< 중국의 對 한국 주식·채권 투자 추이 >

(십억 원)



자료 : 금융감독원.

주 : 주식은 순매수, 채권은 순투자 기준.

⑥ 한국으로의 중국인 유입 가속으로 對 중국 여행수지 흑자 지속

○ 한·중 간 인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있는 가운데,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약 70%에 이룸

- 양국 간 인적 교류 규모가 지속 확대

- 양국 간 인적 교류 규모는 1995년 약 59만 명에서 2015년 약 1,035만 명으로 약 18배 증가
- 한국 내 중국 입국자 수는 1992년 1.4만 명에서 2015년 590.3만 명으로 연평균 약 30% 증가했으며, 訪韓 중국인 비중도 0.6%에서 42.1%로 급상승
- 중국 내 한국인 입국자 수도 동기간 1994년 34만 명에서 444만 명으로 약 13배 증가했으며, 연평균 약 13%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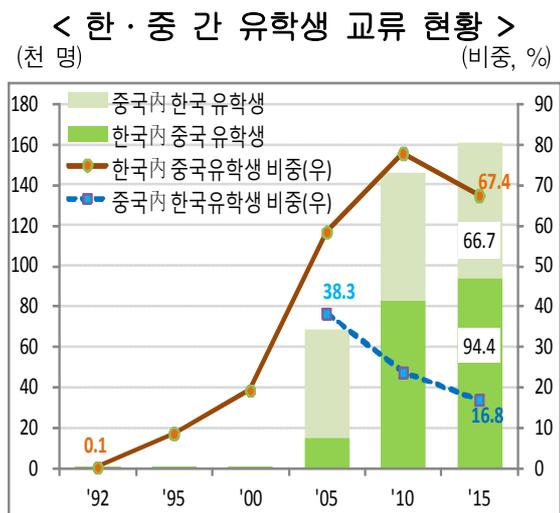
- 특히, 한국 내 중국 유학생이 크게 늘어남

- 한국 내 중국 유학생 수는 1992년 3명에 불과했으나, 2015년 현재 9만 4천 명에 이르며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약 67%를 차지
- 반면,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03년 3.5만 명에서 2015년 6.7만 명으로 약 2배 증가했으나, 중국 내 전체 외국유학생 중 비중은 동기간 45.5%에서 16.8%로 지속 감소하고 있음



자료 : 한국법무부, 중국여유국.

주 : 訪中 한국인 비중은 전체 訪中 외국인수 (홍콩·마카오·대만 제외) 대비 한국인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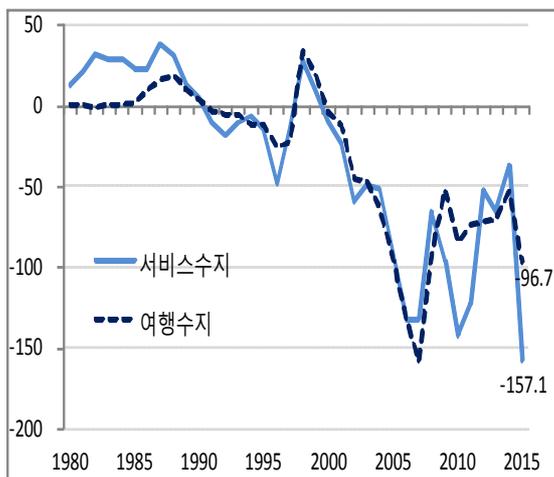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법무부, 중국교육부.

주 :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수 기준.

○ 한편, 국내로 중국인 유입이 가속되면서 한국의 對 중국 여행수지 흑자폭이 빠르게 개선

- 국내 여행 수지는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 적자 폭이 빠르게 확대
  -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2015년 15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2000년대 초반부터 적자 폭이 지속 확대
  - 여행수지도 동시점 약 9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2000년 대 중반 이후 가장 가장 높은 적자폭을 보임
- 국가별로는 유일하게 중국이 2011년부터 국내 여행수지 흑자국으로 전환
  - 미국, EU, 동남아 등 국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여행수지 적자 대상국으로 전환되었음
  - 다만, 일본은 2005~2008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수지의 유일한 흑자 대상국이었으나, 2013년 아베노믹스 이후 여행수지 적자국으로 전환
  - 한편, 중국은 2010년까지 국내 여행수지 적자 대상국이었으나, 2011년부터 국내로의 관광이 늘면서 흑자 대상국으로 전환, 2015년 현재 약 70억 달러의 여행수지 흑자규모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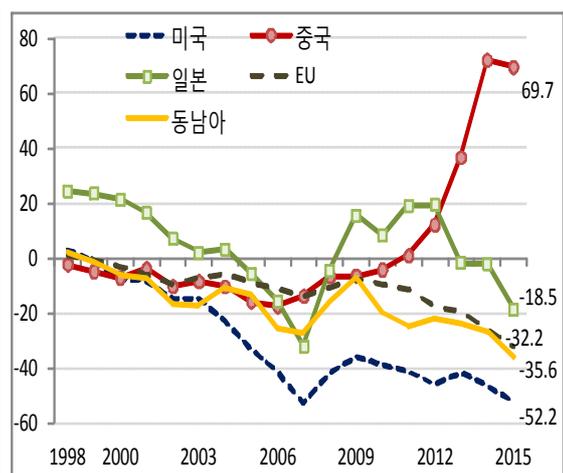
< 한국의 서비스 및 여행수지 현황 >  
(억 달러)



자료 : 한국은행.

주 : 서비스수지란 운수, 여행, 통신서비스, 보험서비스, 특허권 등 사용료, 사업서비스, 정부서비스, 기타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됨.

< 한국의 對 중국 여행수지 현황 >  
(억 달러)



자료 : 한국은행.

주 : 동남아 국가는 베트남, 라오스, 캄보디아, 태국, 미얀마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브루나이 등을 의미.

⑦ 양국 간 온라인 교역 시대 도래

○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한·중 양국은 해외직구를 통한 온라인 거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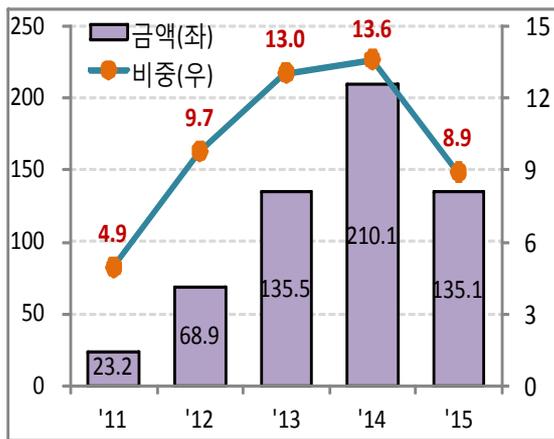
- 한국에서 중국으로부터 구입하는 해외직구는 전체의 9% 수준

-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 B2B(Business-to-Business) 거래가 대부분이나 최근 B2C(Business to Consumer) 거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, 한국은 2013년 현재 전체의 3% 수준
- 특히, 한국의 對 중국(홍콩 포함) 해외직구는 2011년 2,300만 달러에서 2014년 2억 1,000만 달러로 급증하다 2015년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나, 전체 국가 중 4번째로 많은 수준

- 반면, 중국에서 국내로 구입하는 역직구 형태는 약 76%에 이룸

-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(2015)에 따르면, 중국의 전자상거래규모는 2008~2015년까지 연평균 약 28% 증가하고 있으며, B2C, C2C 등 온라인 쇼핑이 최근 급성장 추세
- 이에 따라, 한류 등 영향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역직구 비중은 전체 역직구의 약 76%에 이르고 있음<sup>3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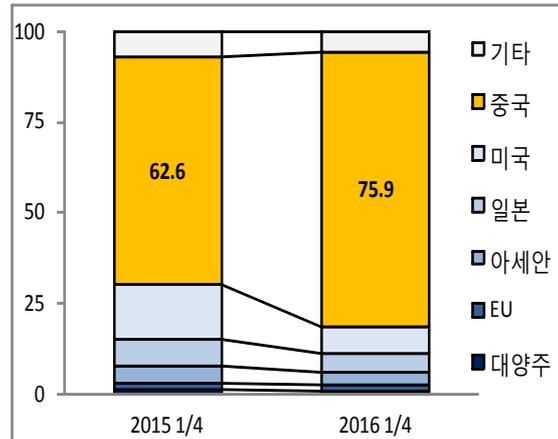
< 한국의 對 중국 해외직구 현황 >  
(백만 달러) (비중, %)



자료 : 관세청.

- 주 1) 홍콩포함.  
2) 해외직구란 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.

< 한국의 對 주요국 역직구 현황 >  
(억 달러)



자료 : KPMG, 통계청 자료 재인용.

- 주 : 역직구란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의미.

3) 한국무역협회의 “Korea Made, 중국시장에서 신통방통하라!”에서 제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, 2013년 기준 중국인들이 6개월 동안 중국내에 구매한(중복응답) 한국제품은 화장품(53.7%), 의류(45.0%), 가공식품(37.8%) 등 순으로 나타남.

### 3. 시사점

- 한·중 경제 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, 서비스 등 양국 간 산업 전반에 걸친 질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
  - 첫째, 상품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양국 간 경제협력 구조를 제조업 및 서비스에 대해 균형적으로 교역 구조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
    - 한·중 FTA 서비스 후속협상에서 서비스 교역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통상장벽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
    - 상품교류와 투자확대를 겨냥해 운송, 물류, 회계·세무, 금융·보험 등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
  - 둘째, 한·중 양국 간 분업구조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해 단순 조립·가공 단계에서의 협력관계를 넘어서 기획, R&D,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확대 발전이 필요
    - 한국은 국내 산업의 R&D역량을 강화하여 제조업 부품·소재 기술의 국산화 정도를 제고시킴으로써 분업구조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
    - 한편, 신성장동력 산업에서는 한·중 간 협력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기술표준을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선점 이익을 공유해야 함
  - 셋째, 아시아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초하여 양국은 국가의 핵심 정책 차원에서의 협력도 적극 모색해야 함
    -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-유럽 대륙을 관통하고 동남아와 중동, 유럽을 연계하는 루트를 건설
    - 한국도 '유라시아 이니셔티브'를 통해 유라시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려 하는 등 양국 핵심 정책 차원에서의 이해관계가 비슷함
    - 이를 위해 한·중이 공동으로 기타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아시아-유럽 대륙을 잇는 교통·통신망 및 물류망 건설, 자원개발 등이 필요

- 넷째, 교육프로그램 개선, 관광 서비스 상품 개발 등 양국 간 인적교류 및 콘텐츠의 질적 개선을 강구
  - 한·중 간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중국과의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인재 육성 뿐 아니라, 고부가 한류 문화상품 개발도 지속 지원
  - 또한 관광, 의료, 레저 등을 융합한 고부가 관광 서비스 상품 개발 강화 등을 통한 방한 중국 관광객의 질적 수요 확대에도 대비해야 함
  
- 다섯째, 한·중 간 온라인 상품 거래가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비한 국내 온라인 유통 서비스 시장의 환경 개선을 모색
  - 최근 해외직구는 물론 역직구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부상하는 만큼 이에 맞는 물류 및 유통 서비스 시장 개선이 필요
  - 국내의 경우, 역직구 시 EMS, 글로벌 및 중국계 특송사 등을 통해 배송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다소 비싸게 책정
  - 중국은 알리바바 그룹 자체적으로 물류 자회사가 해외직구 플랫폼 상품을 해외에서 중국으로 직배송하여 물류비가 절감되고 있음

한재진 연구위원 (2072-6225, hzz72@hri.co.kr)

천용찬 선임연구위원 (2072-6274, junius73@hri.co.kr)

[ 부 록 ]

○ 무역보완도(Trade Conformity Index)의 개념

- 정의 : 한 국가의 수출품 구성이 수입상대국의 수입품 구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는 지표임

- 의미 : 한 국가의 상품수출구조가 상대국의 수입구조와 비슷할수록 무역보완도 지수는 1에 가까움

- 무역보완도 산출 방법

$$C_{ij} = \frac{\sum (X_{ij}/M_{ik})}{\sqrt{\sum X_{ij}^2 \times \sum M_{ik}^2}}$$

단, 여기서  $C_{ij}$ 는 i국의 j국에 대한 무역보완도,  $X_{ij}$ 는 i

산업 수출액이 j국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,  $M_{ik}$ 는 i산업 수입액이 k국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

- 적용 산업

· 석유·석탄(HS코드 27), 철강(HS코드= 72), 철강제품(HS코드 73), 기계(HS코드 84), IT(HS코드 85), 자동차(HS코드 87), 조선(HS코드 89), 정밀기기(HS코드 90) 등 8개 산업

· 위 산업은 2014년 기준 한국의 총 수출에서 76.5%를 차지하며, 중국의 총 수출에서 54.9%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임